

민족과 섹슈얼리티의 경합

: ‘박경원’의 생애와 ‘청연’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김선혜

“청연”은 제작 당시부터 ‘조선 최초의 여비행사’라는 소재와 대규모의 제작비로 인하여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개봉을 앞두고 ‘제국의 치어걸, 누가 미화하는가’¹ 라는 제목의 ‘청연’을 비판하는 글이 ‘오마이뉴스’ 기사에 실렸고, ‘안티청연’ 카페가 개설되는 등의 반대 운동이 진행되었다. 기사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은 박경원이 그 당시 체신부장관이었던 ‘고이즈미’의 애첩이었다는 점과 그녀의 마지막 비행이 ‘일만천선비행’이었다는 점을 들어서 ‘청연’은 친일을 미화하고 있는 영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일제시대의 근대사 현장’와 ‘건널 수 없는 해협’은 모두 고이즈미와의 ‘염문설’이 있었을 뿐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보다도 그 당시 상황에서 여류 비행사에 대한 가십이 얼마나 언론에 많았는가에 주목하고 있을 뿐이며 그로 인하여 박경원이 가졌던 번민에 대해서 쓰여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정황상의 증거도 없이 “청연”은 ‘추측’만으로 매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시작된 친일논쟁은 진정되지 않고 증폭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흥행참패로 기억되는 영화가 되었다.

이 글의 관심은 실제 박경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이에 대한 논의 없이 단지 ‘제국주의의 치어걸’이라는 선정적인 기사 제목 하나로 친일영화라는 낙인이 찍혀서 상영반대의 움직임까지 나올 수 있는 밑바탕에는 어떤 ‘민족의식’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청연”반대의 움직임은 단순히 사람들이 원래부터 투철한 반일감정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 반일이라는 의식을 환기시키는 특정한 맥락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역도산” 역시 일본에서 국민적 영웅이 되었던 조선인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연”과 달리 친일 논란이 제기되지 않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¹안티청연’의 촉발제가 되었던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권기옥’ 평전을 집필 중이었으며, 조선 최초의 여비행사이며, 독립운동을 했던 권기옥을 조명하지 않고 박경원을 영화화했다는 것에 큰 유감을 드러내고 있다. 「제국주의의 치어걸, 누가 미화하는가」, 『오마이뉴스』, 2005.12.19, 정혜주 기자.

또한 2005 년 한국사회에 있었던 ‘청연’ 반대운동과 박경원이 살았던 1920 년대 ‘신여성’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 년대 역시 ‘신여성’에 대한 반격(backlash) 담론이 팽배하였기 때문에, 이 당시 ‘박경원’에 대한 담론과 80 여 년이 지난 현재 ‘청연’을 둘러싼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민족의 경계를 넘나드는/위협하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위치 지어지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1. 1920-30 년대의 박경원

1.1 박경원의 생애

박경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별로 알려진 적이 없다. 이는 박경원이 나혜석이나 김일엽 같은 자유주의적이고 급진적인 자신의 주장을 ‘글’로써 표현하는 여성이 아닌 비행사였기 때문이며 또한 그녀가 일본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경원에 대한 첫 연구는 2001 년에 발간된 ‘일본 속의 한국 근대사 현장’에서 김정동이 ‘하늘을 꿈꾼 여자 박경원’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 학자 역시 ‘카노 미키요’가 1994 년에 낸 <건널 수 없던 해협- 여성 비행사 박경원의 생애>²를 통해서 박경원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두 저작을 통해서 살펴보면, 박경원은 1897 년 대구에서 출생하였으며, 1912 년 명신여학교에 다니다가 1917 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박경원은 요코하마 미나미 요시다정에 있는 가사하라 공예강습소에 입학해서 2 년 반을 지내다가 1920 년에 귀국하여 조산부 간호부과에 입학하였다. 22 년에 조선 최초의 비행사인 안창남이 고국 방문 비행을 하였으며, 이는 비행사가 되고 싶었던 박경원에게 큰 자극이 되었던 사건인 것 같다. 이후 박경원은 1925 년 일본비행학교 정과에 들어갔다.³ 이는 조선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었으며, 많은 신문들이 간간히 이 소식을 보도했던 것으로 보인다.⁴

² 한국에 번역된 책은 『여자의 날개로 날고 싶다』.

³ “여용사 박경원양 비행학교에 입학, 부모의 거절과 만혼 청혼도 버리고 단연 일본으로 건너가 비행사 지원”, 『동아일보』, 1925.07.09.

⁴ “... 녀자가 비행기 공부를 한다고 그리 장할 것이 무엇이겠습닛가마는 일본에서는 아즉 이에 뜻을 두는 녀자가 드물 뿐 아리라 조선 녀자로는 나 한사람뿐임으로 때로는 남들은 곤난을 격근 일이 만앗 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선생들의 호의로 그 학교 조교수로 잠간 잇게 되엇섯습니다. 그런데 작란 조화하는 일본 학생들이 하도 놀리고 못살게 굴어서 할 수 업시 남복을 하고 다닌 일까지 잇섯습니다 마는 역시 그들의 성화로 결국 그것을 그만두게 된 일도 잇습니다.”, 『동아일보』, 1925.12.12.



《동아일보》1925년 9월 4일자 기사.



朝鮮初の女性飛行士・朴敬元——1926年
(写真提供・木暮隆氏)

<20년대 신문에 보도되었던 박경원>

이후 1926년에 조종과에 정식으로 입학하였으며, 27년 초까지 194회의 비행 기록을 세웠고, 25시간 44분 이상을 탔다. 이 해에 3등 비행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그 다음해에 관동비행구락부 주최의 도쿄 시부야 구 요요기 연병장에서 열린 제4회 비행경기대회에서 고도상승 경기로 3등에 입상하고, 2등 비행사가 되었다. 일본인 두 명에 이어 세 번째였으며, 조선에서는 여성으로 처음이었다. 박경원은 2등 비행사 면허에 합격하고 앞으로도 비행사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당시 2등 비행사 면허를 따면 자신의 고행까지 비행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박경원은 조선의 여성이라는 것이 고국비행을 가로막고 있으며, 비행사로서의 삶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자신이 여류 비행사이기 때문에 1등 비행사 면허를 딸 수 없었으며, 조선 비행사이기 때문에 군용기를 불하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경원은 고국방문비행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료 비행사인 ‘키타무라 겐코’의 도움으로 그 당시 체신부장관을 만나게 되었고, 비행기를 불하 받게 된다. 하지만 곧 내각이 바뀌고 ‘고이즈미’도 사직함에 따라서 후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고국방문비행이 어렵게 되었다. 후원을 받아서 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때에 만주국 승인을 기념한 <일만친선 황군 위문 연락비행>을 하기 위해서 민간 비행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지원한다. 이 때 아시아의 비행사가 되고 싶었던 박경원에게는, 일만친선이라는 목적보다도 이제 조선을 넘어서 만주까지 비행할 수 있다는

⁵ “코마즈나 키베 시게노와 같은 일본 여류 비행사는 재빠르게 군용기를 불하 받았다. 그런데 경원에게는 벌써 2년이나 ‘검토 중’이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경원은 그럴 때마다 자신이 조선인이기 때문이라고 이를 뿌듯뿌듯 같았다.” 『여자의 날개로 날고 싶다』 중에서.

것이 더 큰 자극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꾸준히 영국과 프랑스에서 혼자 비행을 해서 일본에 도착한 여류 비행사들의 환영비행을 통해 교류하면서 꿈을 키웠기 때문이다. 박경원은 이 비행에서 1933 년 8 월 7 일 조선을 향해 비행하다가 ‘청연’과 함께 추락하여 죽게 된다.⁶

1.2 ‘신여성’으로서 박경원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단신으로 일본으로 떠나서 혼자 힘으로 비행사가 된 박경원은 신여성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신여성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으며, 다양한 범주의 신여성들이 존재하지만 교육받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새롭게 등장한 근대적인 주체로서 신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박경원이 쓴 글은 유고집에 실려 있는 「우리 여류 비행사는 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와 「푸른 하늘 예찬」이 있다. 이 짧은 두 편의 글을 통해서 박경원이라는 인물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행사라는 직업으로서 박경원이 근대적 주체임을 알 수 있다. 첫째, 이는 땅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인간이 비행기를 조종함으로써 하늘을 난다는 것 자체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라는 의미에서 근대적이며, 둘째 아무도 없는 하늘을 혼자서 몇 일이고 비행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근대적 자아의 욕망이라는 점에서 근대적 주체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를 다루는 능력과 이에 대한 과학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비행사라는 직업은 아직까지도 남성의 직업으로 여겨져 있는 분야이다. 비행사가 되고자 했던 박경원의 열망은 2 등 비행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될 수 없었으며, 그 당시 일본의 여류 비행사들이 비행사로서의 일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렇게 모처럼 아주 열심히 배운 재능을 그녀들은 어떻게 이용했을까? 왜 그녀들이 실망하여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지금 그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괴롭고 참담하게 여기까지 온 그녀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 커다란 원인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들이 모습을 감추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스스로가 알 것이다. …… 나는 말하겠다. 그녀들에게 직업 혹은 사회의 원조가 주어진다면 서구 제국의 여성들에게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⁷

⁶ “사람들은 그녀의 장한 뜻을 우러러보는 듯이 목을 길게 늘어 빼고 기다리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녀를 낳은 대구에서는 1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만히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 슬픈 소식이 전해지자 너나 할 것 없이 말을 잃고 ‘설마’라고 말할 뿐이었다.”, 『매일신보』, 1933.08.10.

⁷ 「우리 여류 비행사는 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 박경원양 추도록, 1933년 11월.

박경원은 여류 비행사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인 여성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없기 때문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당시 잡지에 기고하였다. 이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경원을 가로막는 것은 ‘조선인’이라는 민족의 문제보다 ‘여성’이라는 성의 문제가 더욱 컸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 남성 비행사는 남성이기 때문에 1 등 비행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일본인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과 같이 2 등 비행사 위치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일본의 여류 비행사를 ‘우리’라고 묶어서 표현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녀의 비교/경쟁 상대는 서구 제국의 여성임이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조선의 여류 비행사가 아닌 아시아의 여류 비행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볼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실망의 구렁텅이, 비탄과 고통의 연옥에서 다시 용기를 불러일으켜 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기름옷을 몸에 걸치던 그날. 그날의 비행장 생활, 이렇게 몇 년, 몇 개월을 반복해 온 자신이 아니었는가! 오늘도 역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 고통을 참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 나는 전진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무 것도 원하지 않는다. 단지 나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은 마음뿐이다.

지금까지 들여다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아득히 먼 저 편 하늘! 그것이 내 자신의 목표는 아닐까? 빨리 전진해 가고 싶다. 하루, 한시도 잊을 수 없었던 이 소망이 이렇게 힘차게 나를 감동시켰다. 하루 빨리 여류 기수로서 내 자신이 스스로 선봉에 서자.⁸

또한 박경원이 자주 비교되는 군비행사인 권귀옥과 가장 다른 점은, 비행사가 되고자 하는 목적에 있다. 권귀옥을 비롯한 그 당시 조선인 비행사들이 민족 해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비행사가 되기를 원하고, 독립운동과 관련한 삶을 살았던 반면 박경원은 “단지 나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은 마음”으로 비행사가 되고자 했기 때문이다. 개인 주체로서 자아성취, 그리고 미지의 하늘에 대한 욕망이 박경원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1.3 성애화된 ‘소문’으로 몰락한 ‘신여성’

하지만 앞서 박경원이 지적했듯이 그 당시 몇 안 되는 여류 비행사들은 중도에 비행을 포기 하였는데, 이는 언론의 보도와 크게 관련되어 있었다. 여류 비행사들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신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신여성들의 개인적 삶에 대한 사회의 과도한 관심은 표면적으로 이들이 대중의

⁸ 「우리 여류 비행사는 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 박경원양 추도록, 1933년 11월.

우상이자 선망 받는 존재였던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신여성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신여성은 단지 남성의 애인으로 자리하거나 ‘훔쳐보기’의 관음적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욕망의 대상으로 구성된다.⁹ 또한 신여성을 사생활의 주인공으로 부각하거나 연애/결혼의 상대로 남겨두는 담론들은 결국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주체를 거부하면서 아무리 재능 있고 훌륭한 여성이더라도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생산하고 있다.¹⁰ 이 당시 활동하던 일본의 여류 비행사들도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과 보도로 인하여 비행을 그만두게 되었다. 일본의 첫 여성 비행사였던 미나미치 요네다가 지도교관의 아이를 임신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하나 둘씩 비슷한 연애설과 소문으로 비행을 그만두는 것을 목격한 박경원은 <동경 니치니치 신문>에 고이즈미 체신장관의 후원으로 고국방문을 하게 된다는 기사가 나오므로써 자신도 염문설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신문사로 찾아가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인터뷰까지 실은 것으로 보아¹¹ 이 당시 남성과의 스캔들이 신여성의 사회적 생명을 얼마나 쉽게 무화 시킬 수 있는 지 알 수 있다.

이 당시 스캔들이 일본 내에서 활동하는 ‘여류’비행사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이었다면, 80 여 년이 지난 후 한국에서는 다른 맥락으로 이 스캔들이 새롭게 해석되고 전파된다. 일본에서 신여성을 바라보는 담론들은 기존의 성별 위계를 위협하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것이었다면, 일본에서 신여성으로 살았던 박경원은 한국에서는 성별화된 민족담론 내에서 성애화된 민족주의까지 덧입혀져서 비난 받게 되기 때문이다.

2. 성별화된(gendered) 민족, 성애화된(sexualized) 신여성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관계는 흔히 남성과 여성의 은유로 설명되어 왔다. 나약하고 수동적인, 동시에 욕망의 대상으로서 피식민지가 재현됨으로써 제국의 침략이 정당화되는

⁹ “신문과 잡지에서는 여류 비행사를 콤팩트 파일럿이라고 불렀다. 화장하는 비행사라는 의미였다. 더욱 더 심한 것은 월간 비행잡지 <항공시대> 1930년 9월호에 실린 <경비행기와 콤팩트 양>이라는 단편소설이었다. 여주인공인 2등 비행사 카가와 하루요는 경원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 그 소설에는 “카가와 하루요는 콤팩트 파일럿이라 부르는 데 대해 ‘여자를 모욕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있긴 했지만, ‘콤팩트상’하고 불려지기만 하면, 사랑해요 하면서 응석을 부리는 듯한 교태를 보이며 격납고 쪽으로 뛰어갔다.”등의 묘사가 있었다.”, 「여자의 날개로 날고 싶다」 중에서.

¹⁰ 이명선, 「근대의 ‘신여성’ 담론과 신여성의 성애화」, 『한국여성학』 19권 2호, 2003.

¹¹ “이 비행은 고향 및 그 밖의 후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몇 시에 날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구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마음이 편안합니다.”, 『동경 니치니치 신문』, 1931.10.29, 「여자의 날개로 날고 싶다」 중에서.

수사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동양과 서양, 남성과 여성, 자연과 문명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항대립으로 구축되었으며, 이 속에서 식민관계가 만들어졌다.

식민관계의 성애화된 구성 때문에, 반식민적 민족주의 담론은 도덕적 순결을 요구하고, 그것은 다시 성적으로 은유 된다. 또 탈식민지적인 노력의 핵심이 유아화되거나 거세된 남성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으므로, 어떤 세력이든 남성적인 권위를 위협하는 세력은 민족 해방 투쟁에 해를 끼친다는 의혹을 사게 된다. 또한 그런 위협이 여성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될 때, 그 여성들은 ‘창녀’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다.¹²

당시 ‘신여성’에 대한 담론들이 넘쳐났던 것은 ‘신여성’의 등장과 함께 ‘신남성’이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여성 담론을 주도했던 남성지식인들은 신여성을 타자로서 자리매김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활발하게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식민지기를 살았던 ‘거세된’ 남성 지식인들은 자신의 불안을 신여성에 투영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신여성을 성애화한다. 신여성에 대한 연구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신여성의 삶에서 ‘성(sexuality)’의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이들 담론에서 신여성은 성적인 존재 혹은 “성적 욕망의 대상(최혜실, 2000:187)이며 동시에 성적인 일탈과 방종의 상징으로 나타난다.¹³ ‘신여성’에 대한 성애화(sexualized)된 담론은 이러한 민족주의 담론의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신여성’은 다양한 범주화가 가능하지만,¹⁴ 모성을 의문시 하고 ‘여성성’을 더욱 강조했던 자유주의적인 신여성들은 가부장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며 그렇기 때문에 이는 반식민 투쟁을 위한 ‘남성성’을 동시에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성에 대한 통제’를 매개로 ‘여성에 대한 통제’를 작동시킴으로써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를 ‘성적인 관계’로 전환시키는 ‘권력의 성애화’를 생산하고¹⁵ 있는 것이다.

성별화된 민족 속에서 신여성의 성애화가 맞물려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박경원’과 ‘청연’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영화 ‘청연’이 문제가 되었던 지점은 그녀의 섹슈얼리티 때문이었으며, 이는 곧 민족의 문제, 식민지의 문제로 곧바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3. 2005 년 ‘청연’의 박경원

¹² 최정무, 한국의 민족주의와 성(차)별 구조, 위험한 여성, 삼인.

¹³ 이명선, 위의 글.

¹⁴ 자유주의 급진주의적 신여성, 사회주의 신여성, 기독교 계몽주의 신여성으로 구분한다., 태혜숙,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2004.

¹⁵ 이명선, 위의 글.

3.1 민족주의, 또는 친일

민족주의 대 친일이라는 강력한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여성 비행사로서의 꿈을 가졌던 박경원의 삶을 그린 ‘청연’이 들어설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연’에서 보여지는 박경원은 성적으로, 민족적으로 모호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얼굴에 기름을 묻히고 자동차를 고치는 모습이나 비행훈련을 받는 모습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연인 한지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적 매력은 강조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성적이거나 탈성적인 이미지로 그려진다. 조선인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조선인으로서의 의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일제 식민시기를 다루었음에도 조선과 일본이라는 큰 갈등의 축이 보여지지 않고, 민족의 비극과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는 민족주의적인 영화가 되지 못할뿐더러 제대로 그 시대를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리얼리티’의 문제까지 의심받게 된다. 민족과 반민족 외에 다른 이해의 틀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쉽게 민족주의가 아니면 친일이라는 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영화 제대로 만들려면 더러운 옷 입은 바짝 마른 애국심 넘치는 주인공이 사악한 기운이 넘실대는 안개 자욱한 일본 거리에서 항상 조선인 멸시하고 학살하며 총칼부림하는 눈 찢어지고 못되게 옷 입은 나쁘게 생긴 일본인들 극적으로 피해 다니면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메카닉 모두 설명된 비행기 훔쳐 타고선 고국으로 날아와 일본 공사관에 자폭하게 했어야 합니다.

Phjhyb, 2005.12.30¹⁶

그나마 ‘청연’에서 가장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부분은 조선적색단으로 몰려 한지혁과 박경원이 투옥되어서 고문을 받는 장면일 것이다. 이들의 안온했던 일상은 한지혁의 친구의 등장으로 반전이 이루어지며, 한지혁은 결국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조선인이기 때문에 투옥되어 고문을 받아야 하는 장면은 충분히 민족 정서를 자극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이 장면이 오히려 작위적이라고 평가 받거나 친일 논란에 면죄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 익숙한 고문 장면에서 박경원의 신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민족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이다. 적국의 남성에게 고문 받고 학대 받는 여성의 몸. 그리고 여성의 신체 훼손이 등장했을 때 이는 민족의 울분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된다. 하지만 ‘청연’에서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한지혁의 신체이지, 박경원의 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이 ‘조선인’을 끔찍하게 고문하는 장면에서조차도 민족정서를 자극하지 못한다. 이는 이제까지 민족정서와 민족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성의 몸을 매개로 구성되어 왔는지를 역설적으로

¹⁶ 이 글에 인용된 모든 영화평들의 출처는 네이버(www.naver.com) 영화 커뮤니티.

보여준다. 또한 민족의 주체는 남성이며, 자신의 소유여야 하는 여성이 타민족의 남성에게 속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민족의 수난’으로 명명됨을 보여준다. 민족적 울분을 가지게 하는 소재는 ‘일본군 위안부’이지 식민지 시기에 날고 싶었던 여성 비행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경원의 꿈은 조국을 배신한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심지어 이는 가져서는 안 되는 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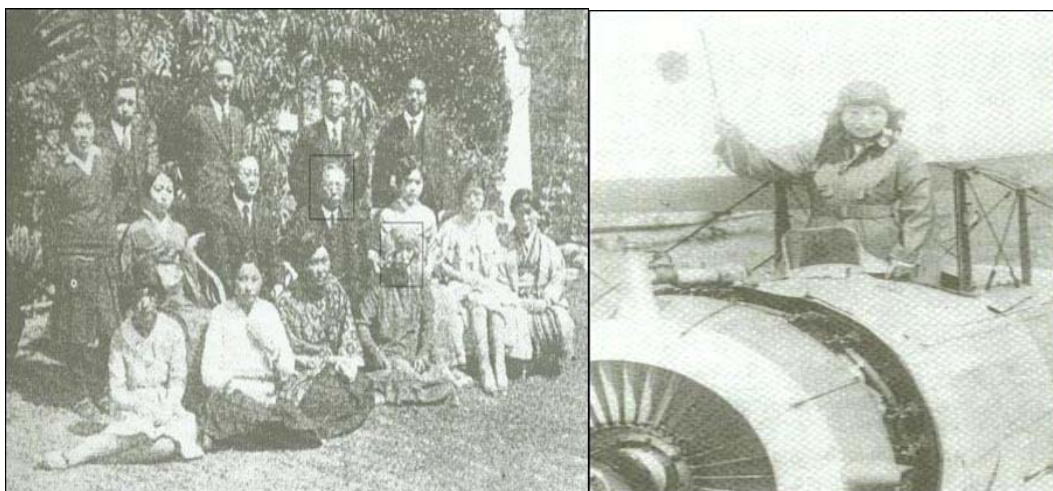
영화에는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어떠한 리얼리티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신대로 끌려서 동물취급 받던 처녀들이나 군에 징병 당해 인간방패로 활용되며 멸시 받던 젊은 이들..

<diamondz5, 2005.12.30>

박경원이라는 사람도 날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꿈이 있고, 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제시대 때 징병으로 끌려가서 5년 동안 온갖 일을 하며 구타를 당하셨던 저의 할아버지도 꿈이 없었는 줄 아십니까? 정신대 위안부로 끌려가신 내 할머니 내 조부모님은 아무런 꿈도 없이 사셨습니까?

<marinblue819, 2006.01.02>

민족의 비극, 민족의 수치를 재현하지 않고 오히려 민족이라는 범주를 넘어서고자 했기 때문에 ‘청연’은 민족 대 반민족의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민족주의적인 텍스트가 된다. 오히려 ‘청연’에서 박경원은 ‘성애화’되어서 재현되지 않기 때문에 민족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며, 민족감정을 환기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텍스트는 곧 친일영화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영화를 친일영화로 명명하게 되는 가장 큰 근거는 여주인공의 섹슈얼리티이다.



<친일논란이 되었던 박경원 사진>

3.2 성별화/성애화된 ‘친일 논란’

청연’ 친일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은 오마이뉴스에 ‘제국주의의 치어걸, 누가 미화하는가’라는 기사가 게재되면서부터였다. 이 기사에서 박경원에 대한 비판은 ‘제국주의의 치어걸’이라는 명명으로 함축될 수 있다. 이는 박경원의 행적들이 기존의 남성 ‘친일파’와는 다른 맥락에서 평가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녀의 친일행적은 직접적이고 의지적인 행위로 의미화되지 않고, 부수적으로 보조적인 행위로서의 친일로 여겨진다.

이는 이제까지 신여성에 대한 재현이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위치 지어졌던 것과 유사하다. 신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 주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외모나 연애와 같은 ‘사생활’을 중심으로 구성되며¹⁷ 이는 오늘날까지도 공적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공격하는 쉬운 가부장적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경원에 대한 재현은 ‘친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공적 영역에서의 직업인 비행사로서 친일을 행한 것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친일이 구성된다. 고이즈미 체신장관과의 염문설은 “'날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팔아……”¹⁸ 버린 것으로 명명되며, 남성 지식인들이 나라를 팔았기 때문에 매국노로 불린다면 박경원은 몸을 팔았기 때문에 곧 나라를 판 매국노가 된다는 성별화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일만친선 황군위문 비행’ 역시도 일본군을 ‘위안’하기 위한 비행이었다는 점이 박경원 친일 논란의 핵심이 되는데, 이 역시 ‘군위안부’에 대한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남성으로 재현되는 일본 제국을 즐겁게 하고, 위안하는 여성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때문에 친일로 명명된다. 또한 증거라고 제시된 고이즈미와 박경원이 함께 나온 사진 한 장으로 박경원이 ‘몸을 팔았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될 수 있는 맥락 안에는, 일본에서 성공한 조선 여성 비행사라는 모호한 -어디에 속해있는 지를 알 수 없는- 위치가 곧바로 민족주의 담론 안에서 ‘더럽혀진’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박경원에 대한 성애화된 논란은 그 당시 비행사들에게 고국방문비행은 관례였다는 점과 박경원이 고국방문비행을 준비하던 같은 시기에 경성 출신의 ‘윤창현’과 ‘윤공흠’은 고향 사람들의 후원으로 비행학교에 입학한지 몇 개월 만에 고국방문 비행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는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일로 기억되고 있다는 점을 모두 탈각시킨다.

¹⁷ 박인덕의 “아침이슬을 머금은 듯한 백합꽃 같은 자태”와 이 아름다움을 흠모하는 몇 남성들의 눈길, “붉은 연애사로 동경을 울리던 여시인 김명순”, “춘원과의 연애와 여의사로 출현한 허영숙”, “<여자계>를 창간 비약하는 싸론의 여왕 김일엽”, “채필을 해외에 자랑하는 나혜석” “ 윤심적 여사의 최후”, 이명선, 같은 글.

¹⁸ 「제국주의의 치어걸, 누가 미화하는가?」, 『오마이뉴스』, 2005.12.19., 정혜주 기자.

그리고 동시에 여성은 민족과 반민족 사이에서 어느 자리에서도 주체적인 위치에 놓이지 못하고, 민족주의 담론의 재료 혹은 장(場)으로서 활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⁹

4. 결론

이 글은 조선 민간 최초의 여 비행사 ‘박경원’의 생애를 다룬 영화 ‘청연’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친일영화로 규정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박경원의 생애와 ‘청연’ 텍스트를 함께 분석해보았다. 20-30년대 비행사가 되고자 했던 ‘박경원’은 식민지 조선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목 받았으며, 동시에 비난 받았다. 근대적인 자아 성취를 하고자 하였던 여성은 민족과 합치될 수 없기 때문이었으며, 모성으로서의 역할만이 여성에게 합당한 영역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2005년도 박경원을 소재로 한 영화 ‘청연’은 영화 텍스트 안에서는 성별화 되어 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 텍스트 밖에서는 성애화된 재현으로 친일영화가 된다. ‘청연’이 친일영화로 이름 붙여지게 되는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민족 대 반민족의 구도 속에서 여성의 위치는 존재하지 않거나, 모호한 위치에 남겨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듯이 민족이란 섹슈얼리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구성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2005년도의 ‘청연’을 둘러싼 논란은 2006년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된장녀 담론’과 이어져 있으며²⁰, 이는 다시 ‘신여성 담론’과도 연결된다. 20년대와 2006년도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신여성’과 ‘된장녀’는 실체보다도 ‘담론’으로서 존재한다는 점, 모두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여성들을 지칭한다는 점, 그리고 이 여성들에 대한 반격(backlash) 담론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신여성’과 ‘된장녀’가 모두 식민지/탈식민지²¹ 남성들의 불안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 최근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불안이 표상된 것이 ‘된장녀’이다. 민족주의 담론 안에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피식민지적 위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별 위계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미국으로 대표되는 스타벅스 커피를 소비하면서 서구 문화 수용에 적극적으로 보여지는 여성들은 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불안은 곧 ‘된장녀’를 만들어 내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오직 나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던 ‘박경원’과 ‘파리에 가서 죽고 싶다’고 남겼던 ‘나혜석’과 같은 신여성에게 민족이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전지구적으

¹⁹ 고이즈미의 애첩이기 때문에 친일을 했다고 여겨지는 박경원이나, 민족의 ‘누이’로서 재현되는 ‘유관순’이나 민족 담론의 재료로 위치한다. 양현아, 「한국인 ‘군 위안부’를 기억한다는 것」, 『위험한 여성』.

²⁰ 최근 된장녀 논란은 묘하게 얼마 전 개봉했던 윤종찬 감독의 <청연>을 두고 벌어진 논란을 떠올리게 했다. 「한국영화의 된장녀, 진실 혹은 대담 한국영화, 된장녀가 바꾼다」, 『필름 2.0』, 2006.08.30.

²¹ 식민주의를 벗어났다는 의미 보다는 식민지 이후의 식민주의라는 뜻에서의 탈식민지이다.

로 이동하고 있는 현재의 초국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는 여성들에게 민족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민족과 섹슈얼리티의 경합은 더욱 첨예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연에서 재현된 박경원>

5. 참고문헌

[단행본]

- 김영옥 외, 2001, 『“근대”, 여성이 가지 않은 길』, 또 하나의 문화.
 김정동, 2001, 『일본 속의 한국 근대서 현장』, 하늘재.
 최혜실, 2000,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연구공간 수유너머 신여성 연구팀, 2005, 『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신여성』, 한겨레신문사.
 일레인 김 외, 2001, 『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위험한 여성』, 삼인.
 조옥라 외, 2004, 『젠더, 경험, 역사』, 서강대학교 출판부.
 조지모스, 2004,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카노 미키요, 1996, 『여자의 날개로 날고 싶다』, 프레스빌.
 태혜숙 외, 2004,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논문]

- 박정애, 2000, 「초기 ‘신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교육: 1910-20년대 초반 여자 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11호.
 송연옥, 2001,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불행한 결렬-1930년대의 한국 ‘신여성’」, 『페미니즘 연구』 1호.
 이명선, 2003, 「근대의 ‘신여성’ 담론과 신여성의 성애화」, 『한국여성학』 제 19권 2호.

서지영, 2006, 「식민지 조선의 모던걸: 1920-30년대 경성 거리의 여성 산책자」,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